

ISA 가입자, 계좌이전 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상품·회사 변경 모두 가능... 계좌이전 해도 기존계좌에 부여된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

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들은 자유롭게 계좌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ISA 계좌이전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 상품 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ISA 가입자에게 금융회사나 가입상품(신탁형·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좌이전 제도를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ISA 가입자는 계좌이전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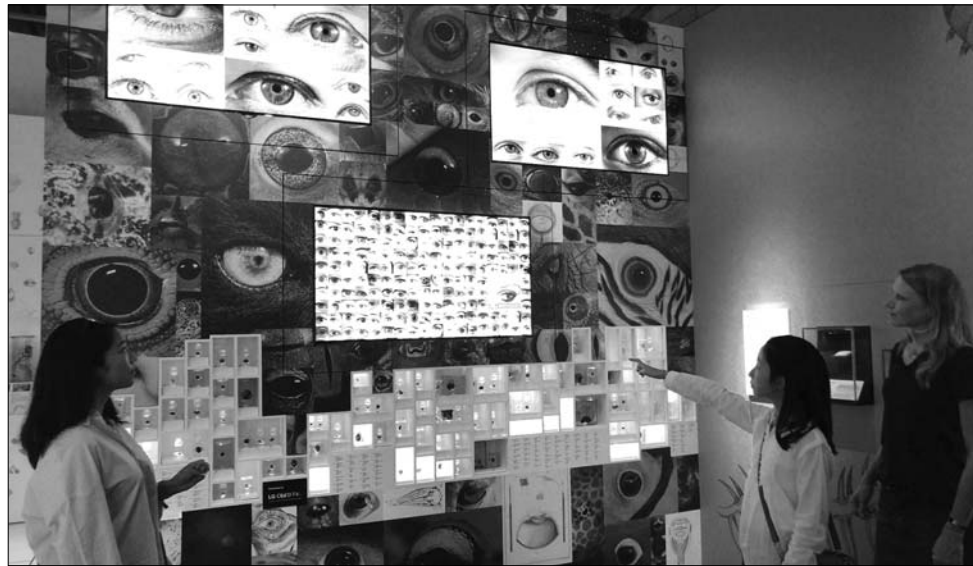
단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제계좌로부터 가입 부적격정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금융회사의 구속행위 방지 목적) 등은 이전이 제한된다.

만약 ISA계좌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이후 계좌이전이 가능해진다.

이전 형태는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거나, 금융회사를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때 창구 직원은 계좌이전시 수수료 변화 가능성 등의 유의사항과 기존계좌의 재산현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신규 ISA계좌 개설시에는 별도의 가



영국 자연사박물관에 설치한 올레드 TV LG전자는 영국 자연사박물관이 오는 11월 6일까지 진행하는 '컬러와 비전(Colour & Vision)' 전시에서 65형 곡면 울트라 올레드 TV(모델명: 65EG960V) 6대, 55형 울트라 올레드 TV(모델명: 55EF950V) 6대 등 올레드 TV 12대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입자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ISA 가입 금융회사를 바꾸려면 희망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계좌이전과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단 가입자의 기존 금융회사는 ISA계좌 해지를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새로 가입자를 받는 금융회사는 이체 확인 후, 이전 결과를 가입자에게 전화로 안내한다.

절차에 따라 ISA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 기존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

권은 기존계좌의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ISA 계좌이전 서비스 시행 시점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현대증권, 하나금융투자, 삼성생명은 18일부터 시행하지만 새로운 가입자를 받는 업무는 추후에 실시한다.

현대증권 25일, 하나금융투자 9월19일, 삼성생명은 10월4일부터 수관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안진수 기자

절세 금융상품 온라인서 확인한다

종류·혜택·유의사항 등 '금융상품 한눈에' 9월부터 게시

하반기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택청약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과 유의사항을 온라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정보를 활용하면 정보부족으로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절세금융상품의 종류와 유의사항을 금감원과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절세금융상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ISA,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연용펀드, 비과세종합저축,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IRP, 상호금융 출자금 등이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별로 세제혜택이 다르고 대부분 5년 이상 장기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또 수수료를 내거나 중도해지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도 있다.

올해 3월 출시된 ISA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해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가입 기간 5년(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3년) 동안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또 FRS, 펀드 등 편입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금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절세상품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은 장기간 유지하지 않으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IRP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을 때에는 공제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된다. 연금저축도 중도 해지를 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율보다 높거나 같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내야 한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각종 보험상품을 비교하는데 수월하도록 하여져 있던 상품 정보의 연계도 강화한다.

현재 보험상품 정보는 각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다모아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공시해 최적의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보험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검색한 특정 보험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보험회사 상품공시로 연결돼 약관, 상품요약서 등 세부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와 보험다모아도 원클릭으로 서로 링크시킨다. /안진수 기자

M&A 불허... 케이블TV업계 위기감 고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구조개편 동력 상실될 것... 정부가 산업붕괴 막을 대책 내놓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 인수합병(M&A)을 불허하면서 케이블방송업계(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이번 인수합병이 인가되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왔다. 인터넷(IP)TV에 밀려 가입자와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사업자간 제2의 인수합병이 촉발돼 사업자가 대형화되면 기술개발과 투자가 가능해져 사업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최근 공정위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이번 인

수합병이 불허되면 케이블TV업계는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통로가 차단된 채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를 겪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향후 인수합병이 제한돼 구조개편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케이블TV업계는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TV는 가입자가 꾸준히 감소한 반면 IPTV는 증가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SO) 가입자는 2011년 12월 1496만명에서 2015년 12월 1442만명으로 줄었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도 62%에서 40%로 줄었다. 반면 IPTV는 같은기간 489만명

에서 1232만명으로 늘었다. 점유율은 20%에서 40%로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5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케이블사업자 매출은 2조2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반면 IPTV 매출은 1조9088억원으로 28.3% 증가했다. 점유율도 2.4%p(10.1%→12.5%) 늘었다.

특히 케이블은 가입자 이탈로 지난해 수신료 매출이 줄어든 반면 IPTV는 가입자(1062만7000세대→1231만4000세대) 증가 등에 힘입어 3005억원 증가한 1조5018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TV업계는 자율적인 출구전략이 제한된 만큼 정부

가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아준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법적 근거 마련, 지상파 방송사와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료 협상, 동등결합(동등합인) 등 이슈 대응수위도 높일 기세다.

케이블업계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TV 가입자 중 47%에 달하는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가입자당매출(ARPU)이 2배 이상 높아져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료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과 현재 KBS1과 EBS만 포함된 의무재전송채널을 확대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또 이동전화와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간 결합상품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안진수 기자

'쉐보레 써머 페스티벌' 개최 8월말까지

전시장 방문 고객 대상 매주 추천 통해 해외여행 상품권 제공

쉐보레(Chevrolet)가 이달부터 쉐보레 전시장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쉐보레 써머 페스티벌' 이벤트를 개최, 총 90명에게 해외여행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달부터 8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가까운 쉐보레 전시장에 방문해 응모할 수 있다.

매주 추천을 통해 5명을 선정 후 동반인까지 총10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해외여행 상품권을 제공한다.

해외여행권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은 두 달 동안 총 90명이며, 당첨자 확인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쉐보레 홈페이지(http://www.chevrolet.co.kr/chevy/event.gm_ixno=239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 5천원 상당의 해피콘을 제공한다.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전원이 즉석 응모해 받을 수 있는 해피콘은 전국 지정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매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달 쉐보레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은 최대 300만원의 현금할인과 다양한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7월에는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고객이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등 쉐보레 RV 차량 구입시 추가로 50만원의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군산=문정곤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엇든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